2012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2-2

2012 ISSUE PAPER

북한이탈여성의 부모 역량 강화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북한이탈여성의 부모 역량 강화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북한이탈여성의 부모 역량 강화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북한이탈여성의 부모 역량 강화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홍 승 아 연구위원
☞ Tel: 02-3156-7149
☞ e-mail: hongsa@kwdimail.re.kr

요 약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 정착의 과정에서 가족생활에서의 문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로서의 어려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이들의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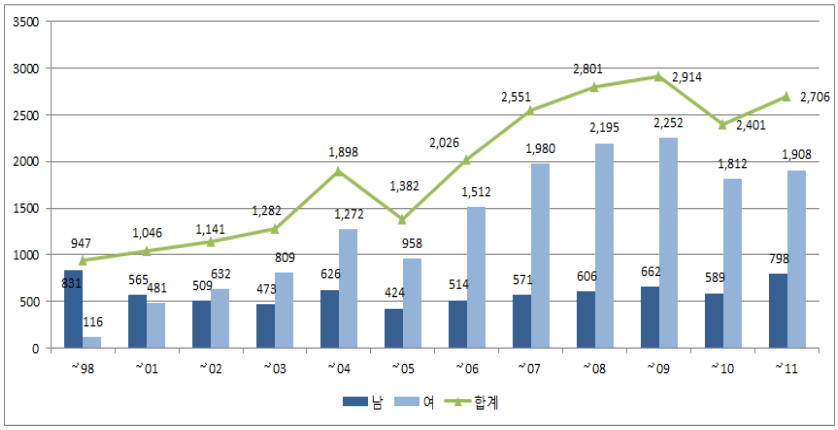
▣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중 2/3가 여성이며, 또한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입국을 하거나, 입국 이후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이들의 가족지원, 자녀양육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시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로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의 문제, 여성의 문제에 보다 중요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과정에서부터 정착생활까지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정착의 과정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며, 가족생활에서도 부부관계의 갈등 및 해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조정아외, 2006; 박정란, 2009; 장명선외, 2010이미화외, 2011).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가족으로서 남한사회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의 부모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그림 1] 입국자들의 성비 현황 (2011년 입국자 기준)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연구의 분석틀: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부모역량의 정의에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생활, 부모역할수행, 사회적응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을 재정의하였음

그림 2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정의와 범주

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I); 설문분석

1) 조사개요 및 주요 설문내용

표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청소년자녀
표본크기	508명(여성 303명, 남성 105명, 청소년 100명)
표본추출방법	자녀연령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2년 8월 8일 ~8월 31일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표 2 부모 대상 주요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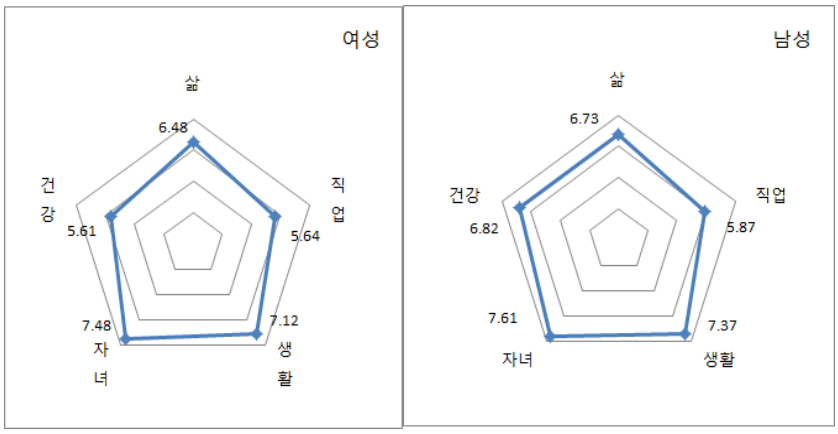
구분		내용
가족생활		■ 가족생활태도 ■ 생활만족도(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일(직업), 건강, 삶 전반) ■ 가사노동의 분담형태 ■ 자녀양육의 분담형태
부모역할 수행	자녀 양육	■ 미취학자녀의 양육방식 ■ 미취학자녀 시설이용 비용 ■ 미취학자녀 교육서비스 이용형태 ■ 초등학생자녀 사교육서비스 이용형태 및 비용 ■ 초등학생자녀의 학습지도자 ■ 초등학생자녀의 학습지도의 어려움 ■ 청소년자녀 사교육서비스 이용형태 및 비용 ■ 청소년자녀와의 대화정도 및 주제 ■ 청소년자녀의 남한생활 적응도 ■ 청소년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구분		내용
	부모 역할 효능감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 부모역할 자신감에 대한 인식 ■ 자녀지도에 대한 인식 ■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 ■ 배우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사회적응	경제 활동	■ 취업유무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종사상 지위 ■ 근로시간 ■ 취업에서의 어려움 ■ 비취업 사유
	지역 사회 적응	■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운 점 ■ 모임 참여 정도 및 만족정도 ■ 모임 참여의 자녀양육 도움정도
정책이용경험 및 욕구		■ 자녀 양육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미취학자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경험 ■ 자녀양육에서 필요한 사항 ■ 남한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취업 시 필요한 지원방안

2) 가족생활

▣ 가족생활과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 생활영역 중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7.48/1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에 대한 만족도(5.61/10점)는 가장 낮아 건강문제가 남한사회 적응과 자녀양육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단위: 점



▌그림 3 ▌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의 생활만족도 비교

주: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10점

[1] 일(직업) 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만 조사함

[2] 배우자와의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만 조사함

3) 부모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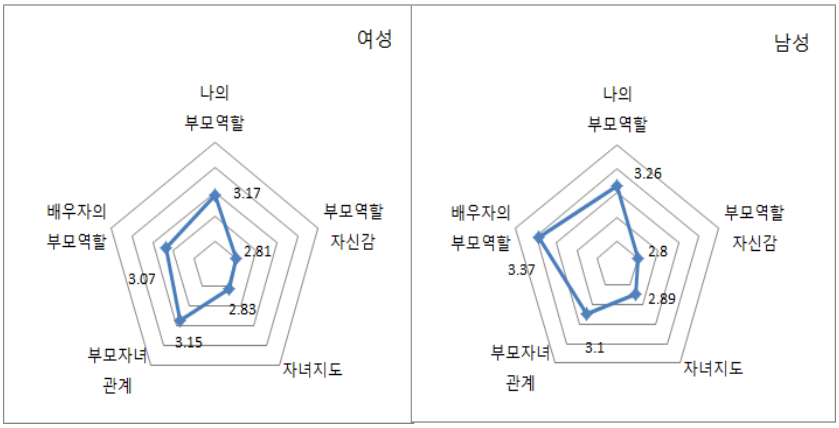
▣ 부모역할수행과 관련해 초등학생을 둔 북한이탈여성 응답자 91%가 자녀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함. 청소년자녀의 경우 '자녀 학교생활'(23.9%),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22.7%), '집안의 경제적 사정'(17.0%) 등에서 어려움을 느낌. 남성은 '집안의 경제적 사정'(31.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북한이탈여성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학습지도를 위한 지식·기술습득 과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자녀를 둔 경우는 학교생활 및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줌

▣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는 '부인이 전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4.7%),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가 37.3%로 나타남. 자녀양육분담에서는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47.5%), '부인과 남편이 절반씩 분담'(22.6%)으로 나타나, 가사노동보다는 자녀양육에

남편의 참여가 다소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인 부모역할 효능감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은 '부모역할'(3.17/4점), '부모자녀관계'(3.15/4점), '배우자 부모역할'(3.07/4점)에 비교적 만족하는 반면 '부모역할자신감'(2.81/4점), '자녀지도'(2.83/4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북한이탈여성들이 부모됨 자체와 자녀관계의 만족은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역할을 수행 지식, 자녀지도, 문제해결 등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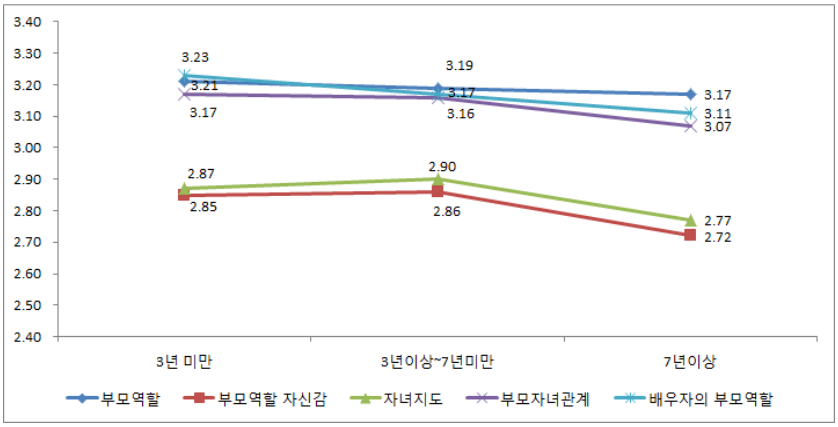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4 ▌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의 부모역할 효능감 비교

▣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을 거주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5개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입국 초기보다 부모역할 효능감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거주기간이 긴 경우 자녀들의 연령대가 높아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술·정보 부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입국초기부터 지속적인 부모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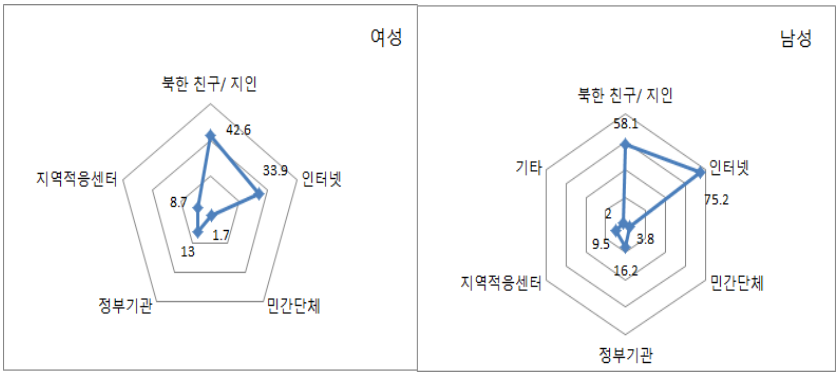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5]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별 부모역할 효능감

▣ 또한 이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북한친구/지인(42.6%)이나 인터넷(33.9%)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습득 및 이해에 한정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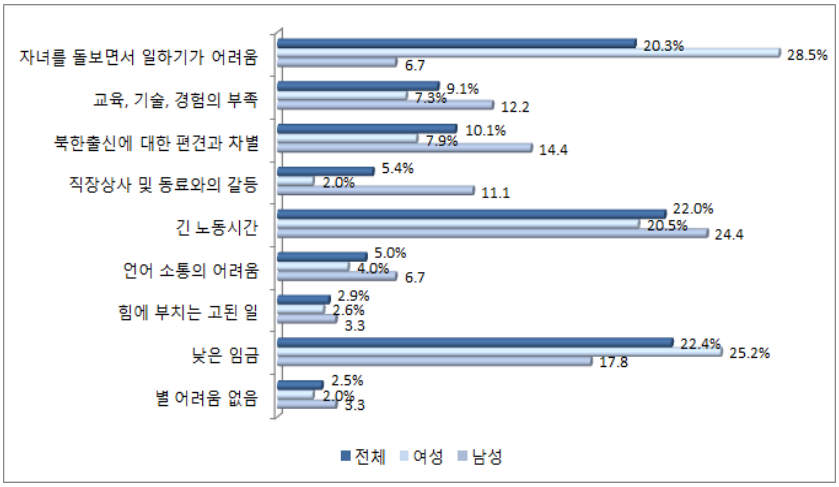


[그림 6] 자녀양육 관련 정보원

4) 사회적응

▣ 사회적응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여성들의 절반 정도만 취업하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80.2%)에 주로 종사하거나 1일 8시간 초과근무자가 47.0%에 달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해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 또한 낮음. 취업자 중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자녀를 둔 경우 '일과 자녀돌봄의 양립'(28.5%)에서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실제로 이들의 취업의 어려움을 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기가 어려움' 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임금(25.2%)과 긴 노동시간(20.5%) 순으로 나타남. 북한이탈남성들의 경우에는 긴 노동시간(24.4%), 낮은 임금(17.8%),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1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

▣ 여성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자녀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46.9%, 32.3%로 가장 많은 반면 자녀양육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자녀를 둔 경우는 긴 노동시간이 27.1%로 가장 많이 나타남. 이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과 더불어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함을 시사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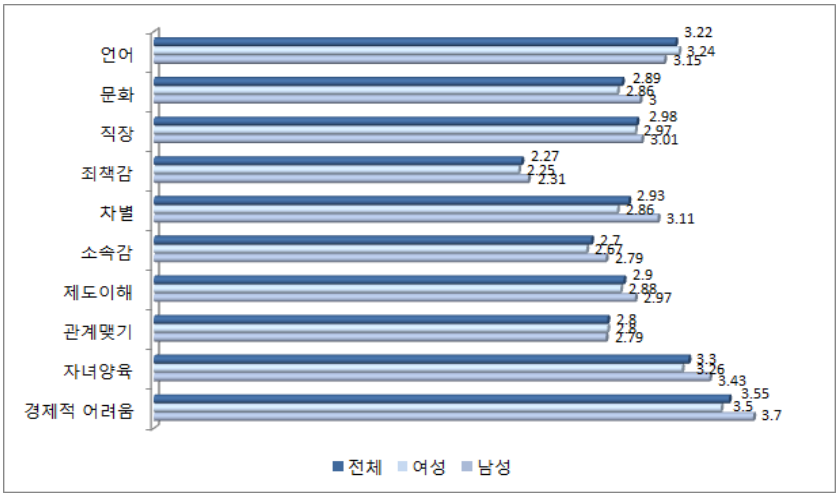
표 3 취업에서의 어려운 점 : 여성

단위: 명(%)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자녀	청소년자녀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기가 어려움	15(46.9)	20(32.3)	8(14.0)
교육, 기술, 경험의 부족	0(0.0)	4(6.5)	7(12.3)
북한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0(0.0)	6(9.7)	1(1.6)
직장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0(0.0)	1(1.6)	2(3.5)
긴 노동시간	4(12.5)	11(17.7)	16(27.1)
언어소통의 어려움	0(0.0)	4(6.5)	2(3.5)
힘에 부치는 고된 일	1(3.1)	1(1.6)	2(3.5)
낮은 임금	12(37.5)	14(22.6)	1(1.6)
별 어려움 없음	0(0.0)	1(1.6)	2(3.5)
전체	32(100.0)	62(100.0)	5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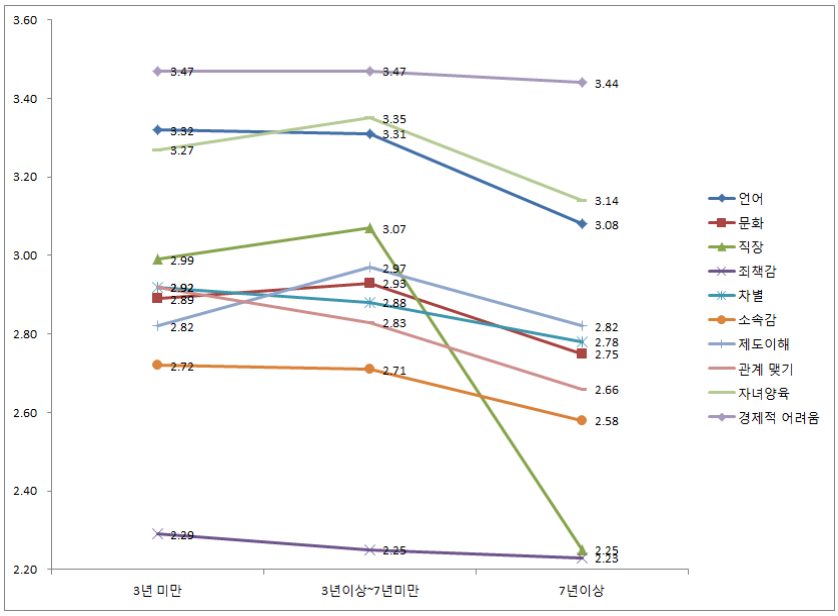
▣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이탈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인 문제(30.4%, 32.7%)으로 나타났음. 그 외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언어, 직장의 순으로, 남서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언어, 차별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점



▌그림 8 ▌북한이탈 여성과 남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경험한 어려운 점 비교

▣ 거주기간별로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 10개 항목 중 자녀양육·교육, 직업 및 직장생활, 남한사회 제도이해, 문화적응 등 4개를 제외하고는 거주기간에 따라 어려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4개 항목의 경우는 입국 후 3년미만의 시기보다 3년 이상~7년 미만일 때 어려움이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양육·교육, 직업 및 직장생활, 남한사회 제도이해, 문화 등에 적응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장기적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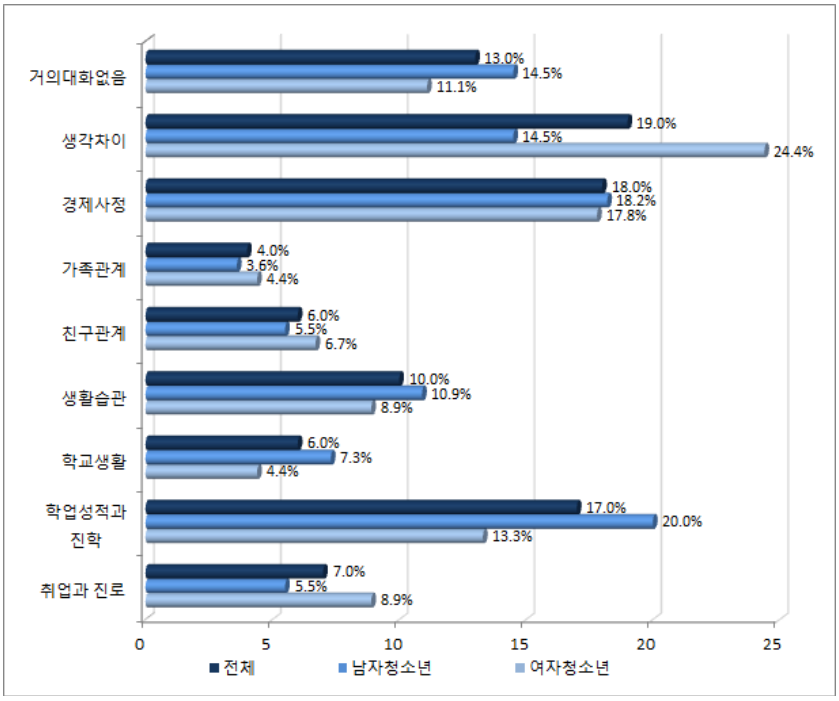
▌그림 9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별 남한사회 적응 시 어려운 점

▣ 북한이탈여성이 자녀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3.83/4점)이 가장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3.54점), 자녀양육과 학습 지도를 위한 지도/정보(3.50/3.45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됨. 남한사회 생활 적응과 관련해 전문상담사의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2.94/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정부의 전문상담사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5) 청소년 자녀

▣ 청소년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부모님과의 생각차이(19.0%)로 가장 꼽고 있으며, 그 외 경제사정(18.0%), 학업성적과 진학(17.0%)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학업성적과 진학(20.0%), 경제사정(1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청소년은 부모님과의 생각차이(24.4%), 경제사정(17.8%)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10 ▌ 성별 부모와 의사소통시 어려운 점

▣ 청소년자녀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적응 등과 관련해서는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대상 청소년자녀들은 남한사회로 오기 전 대부분이 평균 3년 정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생활(3.19/4점), 학교생활(3.04/4점), 남한사회 만족도(3.08/4점)가 비교적 높았으나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교수업, 문화와 언어적응, 친구사귀기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II);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1) 가족생활

▣ 북한이탈여성들의 가족생활은 탈북과정과 중국 등의 제3국 체류과정에서, 남한사회 정착의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갈등과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불안정한 가족생활은 안정적인 자녀양육에 위험적인 가족환경이 되고 있음

▣ 북한이탈남성들 역시 정체성의 혼돈과 불안정은 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역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특히 여성에 비해 남한사회 적응도가 느린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겪는 사례도 발견되었음

▣ 청소년자녀 역시 가족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복합적인 가족을 형성하거나, 중도입국 등의 과정에서 부모와 별거기간을 거친 경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부모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북한이탈여성, 남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및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부모역할 수행

▣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초기 정착의 과정에서 부모의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해둔 경험이 많이 발견되었음. 또한 적절한 자녀양육 방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

▣ 자녀의 연령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양육의 어려움, 육아로 인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의 적응과 보육비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 등이 있었음

▣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 정보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의 학교적응의 문제, 자녀의 학습지도 및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음. 실제로 이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녀학습을 지도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특히 청소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이 있었음

▣ 한편,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음. 특히, 비록 자신들은 탈북 1세대로서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세대에서는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남과 북을 잇는 통일세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음

3) 사회적응

▣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에 더하여 탈북이후 한국사회 입국과정까지의 긴장과 불안한 생활을 통해서 얻은 심리적, 신체적 병약함,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으로 사회적응은 매우 취약한 현실임

▣ 이러한 결과 남한사회에서도 이들은 자신을 '영원한 이방인', "국제난민"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불안해 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만들어나가는데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한사회 적응의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넘나들면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함

4) 청소년자녀

▣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문제가 가장 큰 위기로 나타났음. 하나원 수료이후 학교선정에서부터 학교적응 과정까지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학교 교과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 멘토링 사업의 도움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교육복지의 실효성 강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그림 11 연구 결과 요약

3 정책제언

제안1)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 교육 및 지원으로 가족갈등 예방 및 가족관계 향상 지원

-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 교육 및 지원으로 가족갈등 및 가족관계 향상 지원
-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하여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
- 하나원 및 하나센터의 교육과정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

제안2)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부모역할 지원

- 북한이탈여성의 가족생활 및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학교측의 협조의 지원, 지역내 건강가정지역센터 및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지원할 필요 있음
- 가족유형별(한부모가족, 외국인 배우자 가족,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족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자녀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욕구에 맞추어 대상별로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제안3)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으로 사

업의 지속성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취업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전문상담사 제도의 이원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① 전문상담사를 초기 생활적응지원과 전문 심리·정서 상담지원으로 이분화해 전문 심리·정서 상담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나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강화

② 전문상담사의 양성과정에서도 초기 정착기를 지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사회적 적응에 성공한 북한이탈여성 및 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표 4 전문상담사제도의 관련법 조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안4) 추진체계의 연계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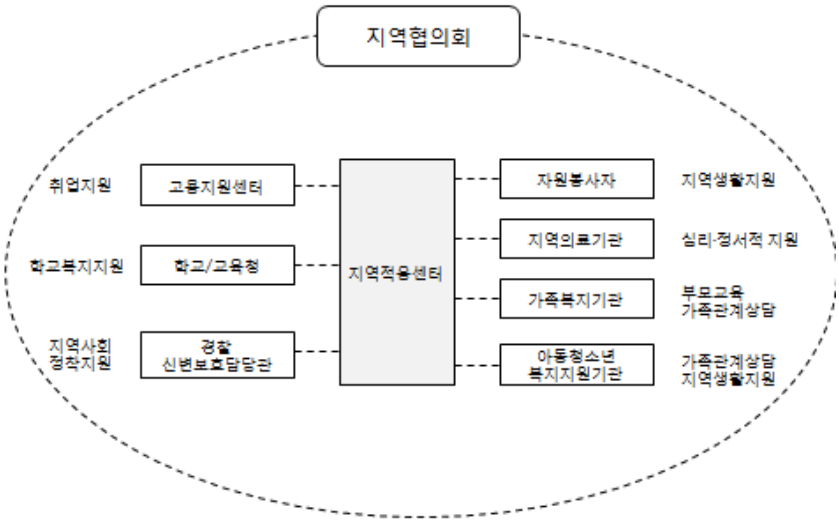
-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분야의 지원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분야 지원업무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연계하여 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
- 지역내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의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적응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 교육청, 사회복지관 등에서 연계와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필요한 전문인력과 서비스를 연계

- 더불어 이러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해서 지역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연계 및 협력체계에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관련된 책임규정을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있음. 이를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지역협의체 구성의 책임규명 관련 조항 및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밖에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강화방안 정책과제들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72 기반으로 재구성.

4 기대효과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정책자료 제공
▣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사회통합적 관점 및 방향 지원
▣ 부처간, 유관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주관부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